

현대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1)

- 성찰적 근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Contemporary Built Environment Design(1)

- Focus on the Reflexive Modernization -

Author 박영태 Park, Young-Tae / 정회원, 동양공업전문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미술학 석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retrieve the communication which is the essential publicness in the built environment design and the self-management which is the original value in terms of sociology. To examine this, the way in which the characters of the design of the publicness have been changed will be concentrated on in the public area since 1980's. Particularly, this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Second modernity design which is against the aggressive utopia - oriented modernization and Reflexive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mentioned by Anthony Giddens, Ulrich Beck, and especially Scott Lash. Also, to understand Reflexive Modernization, the realism art in the view point of the objective recognition of modernity and identity emphasized by Scott Lash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eue Sachlichkeit which is a part of the realism art, how the reflection of the design can be the function of the design will be addressed and some examples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communications and self-education in the design of the publicness. Thus, Contemporary Built Environment Design features are categorized into universalit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it reaches that the past Neue Sachlichkeit meets the spirit of art; it concludes that the efforts of the reflection of the modernity, intensity and development in design are the challenges for the purpose of the design of the publicness.

Keywords 성찰적 근대화, 세컨 모더니티, 신즉물주의, 공공환경디자인, 공공성
Reflexive Modernization, Second Modernity, Neue Sachlichkeit, Built Environment Design, Public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 주도의 공공디자인의 열기 속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정책과 그 결과는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압축근대화라는 시대적 한계를 내재한 채 문명과 문화의 시제불일치를 정부주도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극복하려는 이 시기의 문제점들을 사회학에서 제시된 성찰적 근대화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근대화의 성찰로 시작된 세컨 모더니티¹⁾의 자세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근대화를 정신없이 수용하기 시작한 우리의 공간환경디자인이 간과하고 있는 공중(公衆)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의 발현이라는 본질적 기능회복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객관적 사실의 비판정신을 핵심으로 공공성이 내재된 신즉물주의의 입장과 또 이것이 내재된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세컨 모더니티의 개념을 근거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표현양상에 주목하여 용어의 개념정의와 흐름에 주목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 정립을 우선으로 한다. 2장에서는 사회학영역에서의 성찰적 근대화와 세컨 모더니티 개념과 이를 디자인에서 구체화 하도록 해주고 있는 사실주의 미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의 사실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근대디자인의 성찰을 기능중심으로 살펴

1) 세컨 모더니티-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신조어 Second modernity is a phrase coined by the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and is his word for the period after modernity.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성찰적 근대화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동시대의 현상들을 모더니티라는 입장에서 새롭게 규명한 용어로서 본 연구의 중심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다. 그리고 현대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특징을 최근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공간환경의 핵심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성찰적 근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구체 사례들을 도시이미지형성에 있어서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이 가지는 사회학적 기능에 한정하여 해외사례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2. 공간디자인과 비판사회이론

과거 도시와 공간, 문화에 대한 성찰적 근대화의 사회학적 시각의 접근은 1890년대 최초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벤야민(Walter Benjamin),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로 시작되어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로 내려오는 프랑크푸르트학과와 최근에는 일상적 사회공간론을 저술한 프랑스의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공간과 사회적 주체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시간-공간-사회의 삼변증법’을 제창한 소자(Edward Soja)나 하비(David Harvey)의 ‘역사지리 유물론’등이 대표적인 논의들이다.²⁾

이러한 성찰은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데, 유럽의 68혁명에 의해 촉발되어 서서히 진행되다가 좌파적 정권들이 유럽의 움직임을 조율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사회학적 시각은 폭로(debunking), 점잖지 못함(unrespectability), 상대화(relativization),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 동기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판과 새로운 의식에 대한 부추김이 가지는 특성은 구체적 방법론이자, 동시에 접근자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진정한 문제는 “개체가 아닌, 체계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전체는 무엇이며 그 체계 전체가 어떤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사회라는 전체체계에 대한 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의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환경디자인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진행에 매우 유효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2.1. 성찰적 근대화와 세컨모더니티

성찰적 근대화론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 독일의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이 주도하고 있는데, 기존의 근대화를 ‘돌격형 근대화’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창의성, 개인과 사회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조화, 사회세력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를 추구하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개념보다는 미학적 영역과 해석학적 영역에서 성찰성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스콧 래쉬(Scott Lash, 1945-)의 개념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든스는 세계화, 탈전통적(post-traditional)질서, 사회적 성찰성(reflexivity)의 확장 이 세 가지를 주도적인 사회변동으로 주목한다. 근대성에 대해서 당대의 상황을 탈근대성이 아니라 후기(late) 또는 ‘급진화 된’ 근대성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⁴⁾

한편, 벡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로 비유했다.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대가로 사회생활에 대한 위험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ogesellschaft)’ 이론이다. 기든스와 벡이 말하는 근대성에는 근대화 자체의 의미와 성취에 대한 자의식적 반성을 고취시키는 성격이 있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애초에 근대성의 제도적 결합과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벡은 따라서 근대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 바로 탈근대가 아닌, 근대이후의 근대, 즉 “세컨 모더니티(Second Modernity)”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한다.

2.2. 스콧 래쉬 - 복원의 해석학과 공동체 이론

이 책의 세 번째 저자인 래쉬는 기든스와 벡의 의견에 덧붙여서, 성찰성을 인지적, 미학적, 해석학적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제한다.⁵⁾

첫째, 성찰적 근대화는 사회구조의 사회행위자 혹은 “행위주체”에 대한 이론이며, 사회구조들은 대부분 “정보구조와 의사소통구조”로 대체되고 있다.

둘째, 칸트, 뒤르켐, 하버마스를 통해 계승된 계몽사상 전통에서 있는 보편자 비판이론을 전제하는 벡과 기든스의 인지적 성찰과는 달리 보들레르, 벤야민, 아도르노로 연결되는 미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의 비판은 고도 근대성의 불행한 총체성에 관한 것이자, 개별자를 통한 고도 근대성의 보편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셋째, 기든스와 벡의 이론은 “개인화”를 강조하고, 심지어 벡은 “나는 나다”라는 선언에까지 나아가 있는데, 래쉬는 공동체 회귀현상의 존재론적 기반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면서 미학적 성찰성 개념을 보다 해석학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우선 성찰성은 암묵적으로 해결적인 것이며, 변증법의 구조에 기초한다. 특히 미학적 입장에서 아도르노는 개

2)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초판, 논형, 서울, 2005, p.32

3) 피터, L. 버거, 사회학에의 초대, 이상률,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6, p.25

4) 앤소니 기든스·울리히 벡·스콧 래쉬,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정일준, 초판, 도서출판 한울, 서울, 1998, p.171

5) 앞의 책, p.164

별자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객체 속에서 “운동계기들”을 보존한다는 부정의 변증법의 입장을 고수한다. 래쉬가 말하는 미학적 성찰의 핵심은 개념과 모사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미학적 성찰의 개별성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주체로 환원 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성찰성을 인식적, 미학적,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달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학적 입장에서는 아도르노가 생각한 미스반데로에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미학적측면의 사회에 대한 “보편적 기능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또는 “공동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체가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위주체와 구조, 주체와 객체, 통제 대 우연성, 개념적 대 모사(模寫)적이라는 이항대립들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의심의 해석학⁶⁾이 아닌, 복원의 해석학임을 언급한다. 래쉬는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생산자중심이나 소비자중심 입장이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의 가능성이라고 언급하면서, 문화적 공동체, 문화적 “우리”가 공유된 실천적 배경, 공유된 의미, 의미의 획득과 관련된 공유된 일상적 행위들의 집합체라는 점을 강조한다.⁷⁾

래쉬는 그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성찰적 공동체에 대해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⁸⁾의 “장(場, field)”개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들은 그 집단에 태어난 것도, 던져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던진다”.

둘째, 그들은 “추상적”공간상으로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뻗어 있다.

셋째, 그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와 비교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문제를 의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제기한다.

넷째, 그들의 용구와 생산물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추상적, 문화적인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부르디외의 장 개념이 유효한 것은 이것은 의심의 해석학의 구성요소인 구조, 행위주체, 담론, 이데올로기, 주체, 객체가 아니라 복원의 해석학의 요소인 습관, 무의식, 체화된 관행들과 무사고적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 개념은 사회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문화 공동체들은 무사고적 범주, 접근이 불가능했던 습

속, 공동체의 기반인 공유된 의미에 대한 성찰성과 이해를 요구한다. 곧 해석학적 성찰성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⁹⁾

이와 같이 래쉬의 주장의 핵심은 미학적 성찰성과 인지적 성찰성, 양자 모두에 나타나는 개인화 명제에 대하여 해석학적 성찰성과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래쉬가 해석학적 측면과 함께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성에 있어서 보들레르, 짐멜, 벤야민, 아도르노와 르페브르처럼 일상성을 내재한 작고 섬세한 미학적 요소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래쉬는 대중적 재현에 있어서의 사실주의 예술에 대해서 개주(改鑄)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3. 공공성을 내포한 참여와 성찰의 미학 - 사실주의(Realism)

래쉬는 현대성과 정체성에 대한 글을 통해 성찰적 근대화 와 사실주의 미학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들은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 “사실주의”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새로운 조명속에 위치하게 했으며,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사실주의는 연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한다.¹⁰⁾

또, 하버마스는 미학적 담론이라는 것은 주관적 양식 속에서 평가적 진술을 형성하고, 다시 미학적 가치에 속하는 주장들로서 그러한 진술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독일의 논쟁은 반대로-그 계보는 헤겔에서 짐멜과 베버를 거치고, 벤야민과 루카치를 통하여 마르쿠제와 아도르노부터 야우스와 피터 뷔루거와 같은 사람들에 이르는데 이러한 분석들의 장점은 미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차원 모두가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이다.¹¹⁾ 래쉬는 사실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으로의 잠식의 시작과 그 광범위함을 개진하게 되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사실주의 예술과 신즉물주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주의와 신즉물주의

현대회화가 아름다움의 재현을 포기하고, 충격과 새로움에 집중하여 송고와 시물라크르의 변주를 감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예술에서의 성찰성, 즉 현실의 참여와 비판은 카라바지오가 속한 바로크회화로부터 전개되어, 쿠르베의 사실주의를 탄생시키고 20세기 초 아방가르드회화의 기법적 특성을 내재한 비판과 현실참여의 신즉물주의(新即物主義, Neue Sachlichkeit)회화로 구체화된다. 이후 예술작품들은 사진 등의 각종 기술매체

6) 보드리야르vs맑스, 라캉vs프로이트, 들뢰즈vs라캉, 데리다vs들뢰즈식의 끝 없는 미학적 주체성의 해체과정을 말한다.

7)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들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제1부의 “세계”에 대한 논의에 의해 촉발되었다. 앞의 책, p.218

8)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으로 ‘부르디외 학파’를 형성하고,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범세계적인 지식인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네이버 백과사전

9) 앞의 책, p.239

10) 스톱 래쉬, 조나단 프리드먼, 현대성과 정체성, 윤병호 외, 초판, 현대미술사, 서울, 1997, p.131

11) 앞의 책, p.133

들과 밀접해지면서 대중의 예술로 불리우는 팝아트, 민중미술, 그리고 작가적 주관성이 강조된 개념미술로 성장하여 현대 영국미술을 견인하고 있는 yBa의 작품들과 거리미술, 그리고 중국의 현대회화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예술자체에 대한 성찰과 또, 대중과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성찰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주의의 영역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1920년대 신즉물주의 회화는 사실주의의 영역 안에서도 특히 사회참여와 비판적 표현을 강하게 드러냈다.¹²⁾

신즉물주의 회화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회화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시간과 공간, 사회와 현실에 대한 직시와 비판을 통해 성찰을 제안한 점이다. 예술의 대상은 개인도 아닌, 아름다움도 아닌, 현실이었고 이것은 바로 “사적영역인 작가개인의 주관성과 공적영역의 객관적이고 보편적 가치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적 개념의 신즉물주의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비록 재현에 불과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음향, 영



<그림 1> 스티븐 스피버그,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한 장면, 1998

상)을 동원한 다크멘타리적 잔혹한 리얼리티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촉지각적인 자극을 통해 전쟁에 대한 비판과 깨우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

적 기법도 포함된다.

신즉물주의 회화는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었으며, 이런 기능은 곧 혁명파도 같은 계급의 전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시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품고 있던 러시아 구성주의와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추상미술과 기하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대부분의 실험들도 사회와 민중을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제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대중을 위한 기능주의로 꽃을 피우게 된다. 신즉물주의 건축 역시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시각과 당시의 미학적, 생산적 역학구조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디자인과 건축의 사실주의적 현실화였다. 신즉물주의는 공공성을 내포한 강력한 기능적 사실주의였다.

(2) 짐멜의 사회학적 미학 - 보편성, 법칙성, 본질의 통찰
사회학자로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짐멜은 “영원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냅사진”이라는 제목 하에 발표한 글을 통해 “모든 대상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총체적인 것, 심층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시도한다.”고 말했다.

1896년에는 “사회학적 미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짐멜은 미학적 접근방법을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성을, 우연적인 것에서 법칙성을 그리고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사물의 본질과 의미를 통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짐멜의 이러한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래쉬의 성찰성에서 미학적 측면과 공동체이론, 그리고 사실주의 예술로서 신즉물주의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공통점은 보들레르, 짐멜, 벤야민, 아도르노와 같은 사상가들의 텍스트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의미들이다. 문제는 래쉬가 앞에서 언급했던 개념과 모사라는 미학적 측면에서 그 재현적 층위가 모호하여 선명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인데, 예술과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그 자신의 미학적 존재로서의 끊임없는 질문과 주제, 객체의 상호작용, 기호적, 기능적 층위의 겹침의 연속적 순환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3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사실주의와 신즉물주의의 특성과 짐멜이 언급한 보편성과, 법칙성, 본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해 전개하기로 한다.

3.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

3.1.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 - 기능에 대한 성찰

2장에서 래쉬가 언급한 복원의 해석학, 그리고 사실주의 회화들의 특징들을 통해 살펴본 미학적 측면의 성찰성과 짐멜의 보편성, 법칙성, 본질을 통해 파악 될 수 있는 디자인 성찰의 핵심은 바로 본질적 목적인 기능이다. 아방가르드예술의 실험 이후 포스트모던미학, 해체주의에서 베르그송, 들뢰즈의 철학적 담론들을 통해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는 디지털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시장과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라는 영역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혼돈 속에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 담고 있는 가장 보편적 목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기능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 형식적 기능 자체에 집중한 점이었는데,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은 기능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양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현대성에 보다 적합한 개념인 콘텐츠¹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협의의, 편견의, 잘못 해석된 기능의 의미가 아닌, 그 존재론적 이유에 있어서 근본주의의 성격을 바탕으로 기능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야 한다. 당시 오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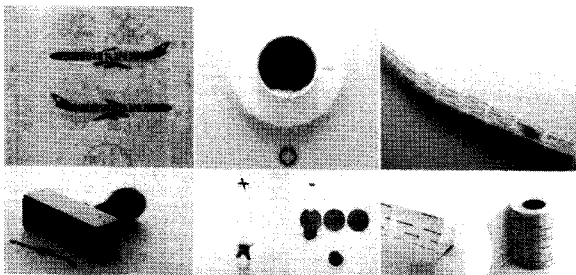
13)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2판, 도서출판 길, 서울, 2008, p.559

14) 콘텐츠는 대상의 본질적 내용물, 즉 질료를 의미한다. 공간 안에 담길 물리적, 지각적, 감성적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능과 프로그램, 이벤트는 물론, 색채, 재료, 분위기, 동선, 감정, 스토리 등 공간과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공간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 박영태, 콘텐츠중심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73호, 2009.4, p.7

12) 박영태, 건축디자인의 신즉물주의적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제50호, 2005.6, p.75

인지불가능의 총체적,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매춘을 위해서라면 화장은 장식이 아니다 이것은 곧, 생존을 위한 기능이다.” 이처럼, 우리가 디자인에서 죄악 시켰던 화장과 악세사리같은 장식도 그 목적에 따라 기능이 될 수 있다. 예술과 달리 디자인의 창조적 작업은 반드시 목적이 수반되게 된다.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은 과거에 간과했던 기능의 성찰을 통해 목적론적 세계관¹⁵⁾의 경계 안에 질료중심의 개념인 디자인의 콘텐츠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디자인의 성찰은 산업화 이후 형상과 기표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 속에 간과되었던 디자인의 가장 보편타당한 목적인 기능의 의미를 성찰하여 디자인이 주체로서의 일차적 목적을 완전히 획득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하라켄야가 기획한 <리디자인-일상의21세기> 전시작품들
(좌) 사토 마사히코, 출입국 스탬프, 2000
(중) 후카사와 나오토, 티백, 2000
(우) 겐코 쿠마, 바퀴벌레 댕, 2000

<그림 2>¹⁶⁾는 앞에서 강조한 내용인 기능적 성찰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좌측의 작품은 공항의 출입국 스탬프로서 비행기의 방향성 자체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기능을 살린 것이며, 가운데 작품은 티백의 손잡이 색상을 적당히 희석되었을 때의 물의 색상과 통일하여,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의 바퀴벌레 댕은 반투명의 끈적한 물-데입 형식을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심미적으로 부담스러운 바퀴벌레의 실체를 흐릿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각적 기능을 가진 사례이다.

현대의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재료에 집착하는 이유도 구축기법과 형식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형상에 대한 성찰로부터 나온 질료중심의 사고에 기인한다. 이것은 화가들이 캔버스라는 틀을 벗어난 이유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는 곧 메시지, 그리고 마사지다”라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

서 현대의 감각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비례와 형식중심의 재현보다는 비록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지더라도 바로크회화의 즉물적 내용물 즉, 콘텐츠 중심의 재현을 지향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촉지각과 공감각의 즉물성(即物性)에 몰입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은 헤겔의 입장에서 바로크적인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의미와 2장에서 래쉬가 언급한 개념=모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중심의 본질적 디자인, 즉 콘텐츠 중심을 의미한다. 또 개인과 주관보다는 보편을 추구하며, 우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야한다는 짐멜의 주장과 같다고 정리할 수 있다.

3.2. 공간환경디자인과 사회학적 공공성

지금까지 디자인의 성찰을 통해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기능, 콘텐츠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공간환경, 공공성의 정의와 이것들의 기능적 성찰을 통한 현대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공간환경과 사회학적 공공성

공간환경(空間環境, Built Environment)은 대규모의 도시 환경에서부터 개인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을 위한 배경을 제공해주는 계획된 주위환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특정분야나 업역(業域)이라기 보다는 도시적 차원의 대규모 공간에서부터 건물사이의 버려진 작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인공 환경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사이다.¹⁸⁾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회학에서의 공공성개념은 공공의 가치, 공공영역, 주체로서의 세 가지 측면의 입장에서 이해된다.¹⁹⁾

대중이나, 민중과 달리 공중(公衆)은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되며, 공공기관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이해된다. 가치, 영역, 주체라는 층위와 함께, 또 공공성 개념은 절차, 내용, 주체의 세 가지 측면이 항상 존재하는데 실제 행위 과정에서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다.

(2) 공공공간, 공공영역의 본질적 기능

위에 언급한 사회학에서의 공공영역에 대한 초기 논의는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적 영역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영역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 비판적 담론 영역에 대한 주목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공공영

15)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존재와 본질의 의미에서 사물의 실현(réalisation)원리이기 때문에, 사물이 스스로 기능하여 발전하는 목적이자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념은 도올 김용옥이 2000년 ICOGRDA의 강연에서 기능주의의 본래정신을 동양의 체용(體用)론과 제법무아(諸法無我)나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오해로 인식된 1920년대 기능주의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다.

16) 하라켄야, 디자인의 디자인, 민병걸, 초판, 안그라픽스, 서울, 2007, pp.48-67

17) 박영태, 콘텐츠중심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73호, 2009.4, p.4

18) 이상민·고은정·임유경,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도 안양, 2008.11.30, p.16

19) 김세훈·현진권·이준형·김정수·이기호·양현미, 공공성, 초판, 미메시스,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2009, p.26

역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합리성(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하버마스가 말한 의사소통 합리성은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에 내재해 있는 합리성으로, 이해가능성, 진리성, 타당성, 진실성의 네 가지 타당성에의 요구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성찰적 기능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공간이라는 기하학적 개념보다는 공공영역이라는 사회현상학적 관점에서 디자인의 공공성을 전개하고자 한다.²¹⁾

3.3. 공공영역에서의 사회학적 기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영역은 성찰적 주체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한 비판 담론 형성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규정되고, 또 비판적 기능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공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개인, 사회, 국가의 자기관리합리성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의사소통합리성이 비판적 성격을, 관리합리성이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특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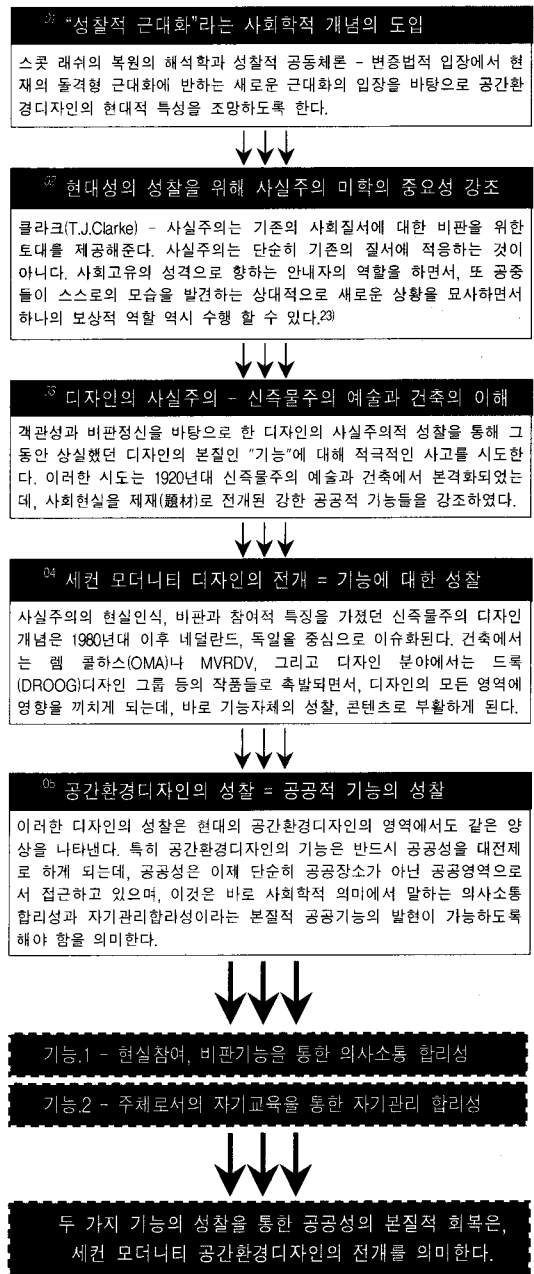
공공성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지역의 재생과 정책의 홍보에 유효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공공정책사업의 많은 부분이 디자인 및 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디자인과 예술은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공간환경디자인에 위치한다면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예술적 영역이 포함될 경우, 또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심미성과 작가주의를 고려해볼 경우 공공성의 기준은 애매해지게 됨을 부인 할 수 없다. 특히, 미술의 경우,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서, 이정보다는 감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개입할 때에는 이러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사회의 문화민주화정책은 국가의 디자인과 예술영역에 대한 개입목적을 명확히 드러내 준다. 문화의 민주화를 통한 성숙한 문화적 삶은 단순히 심미적 취향이 고급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주체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과 예술 활동은 “시민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²²⁾

따라서, 3장에 서술된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을 기능적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시민들의 의사소통기능과 주체적 시민형성이라는 교육적 기능이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간환경디자인의 특징과 그 경계 안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2장의 내용들과 같이 정리해보면, 공간환경디자인의 성찰적 근대화는 사실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공공의 본질적 기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흐름의 종합핵심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의 핵심흐름

20) 앞의 책, p.202

21) 공공공간의 미술-공공공간/창작으로서의 미술/관객으로서의 미술 vs 공공영역의 미술-공공영역/기획으로서의 미술/주체로서의 주민이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 앞의 책, p.293

22) 앞의 책, p.32

23) 스킷 래쉬, 조나단 프리드먼, 현대성과 정체성, 윤병호 외, 초판, 현대미술사, 서울, 1997, p.161

4장에서는 2장의 성찰적 근대화의 특징이 표현된 세컨 모더니티 공공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세컨모더니티 공간환경디자인의 사례

4장에서는 2장, 3장에서 살펴 본 디자인의 성찰성과 공간디자인의 공공성과 기능에 대한 특징이 현대 공간환경디자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가지는 공간환경디자인의 입장을 사회학적 기능에 한정하고 있기에 2, 3장에 언급된 비판사회이론으로 시작된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세컨드 모더니티, 즉 디자인의 성찰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의사소통합리성과 자기관리 합리성. 동시에 사례들의 구축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재생, 장소마케팅 등이 언급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경제학적 기능과 행정학, 정치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4.1. 탈기표적인, 실재를 위한 사실주의 실현개념 - [MIRROR-MAP-PAINTING]

디자인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1920년대 산업화의 선두에 있었기에, 또 동시에 근대디자인의 원류로서 모더니즘의 성찰을 통해, 인본적인 입장과 문화, 환경적 차원에서 디자인을 다시 돌아보자는 입장에 유리한 편이다. 아무래도 이들 국가들의 공공환경디자인에는 미국식의 포스트모던한 상업주의적 취향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영역의 디자인에는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나타난다.

유프레흐트 대학의 빔 마르세유(Wim Marseille, 1961-)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네덜란드 디자인의 기법의 실체를 MIRROR-MAP-PAINT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²⁴⁾ 이 개념은 작가,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소통과 자기발전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내용, 지역재생, 현대의 정보과학기술까지 활용되어 공공영역의 기능을 잘 회복한 내용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인 성찰적 근대화를 중심으로 한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공공성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4) 박영태, 콘텐츠중심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제73호, 2009.4, p.4

25) 네덜란드 디자인의 진정성과 도전-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하계연수-특별강연, Wim Marseille / 네덜란드 Utrecht Graduate School of Visual Art and Design

<표 1> MIRROR-MAP-PAINTING개념²⁵⁾

	MIRROR	MAP	PAINTING
정의	거울로 비쳐보기 (시간과 공간의 거울)	지도(파레트) 만들기	그림그리기
작업 내용	거울에 투영된 이미지는 숨길 수 없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이다. 정량적, 정성적 통계와 각종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분석매트릭스의 결과물들은 파레트를 만들기 위한 물감들의 색소가 된다.	MIRROR단계에서 제작된 분석매트릭스를 통해 지도를 조합하여 파레트를 만든다. 이때, 선입견이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 파레트는 민주적 의견수렴과 조절절차에 의해 제작된다.	MAP단계에서 제작된 지도의 요소들은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물감이 되는 파레트가 된다.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로서 파레트에 담긴 물감들로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키워드	객관적 입장 사실적 요소 분석	위계 소거 지도 조직- 질료 구축 민주적 절차, 협의	자유로운 형상화
공공성	다리는 사적인 영역과 국가영역을 매개하는 공공영역이다.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유도하였으며, 비판과 참여,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성을 실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지방도시 Friesland의 다리에 설치된 공공설치작품인데, 이곳은 겨울이면 스케이트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했다. 1909년 이후의 이 지역의 이러한 역사적 이벤트를 목록화하여 맵핑한 작품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이 타일의 주인공들이 주민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다.

(1) 1단계-MIRROR(거울로 비추어보기)

MIRROR는 글자 그대로 거울로 반사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구석구석 철저한 리서치를 통한 성찰의 경험이다. 디자인과 예술작품의 공공성은 주관성과 개별성이 자리한 사적영역의 가치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진입시키느냐이다. 따라서 그 접점의 문제해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MIRROR를 통한 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시되고 보편적이었던 관성들에 의해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의 영역에서 우리는 형상과 질료의 차원의 입장에서 형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조형언어에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조건과 배경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림 4>는 초기 이 프로젝트의 착수는 지역의 정서와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의 장소적 특징들을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 프로젝트의 참여홍보와 주민들의 사진기록화 작업

(2) 2단계-MAP(파레트 만들기)

작가는 거울을 통해 이 작품의 제재(題材)를 교량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스케이트대회와 지역 장소성의 구축의 주체인 지역의 주민들과 스케이트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곧 MAP의 주요 요소들이 된다. 스케이트대회의 역사적 사실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PAINTING에 사용될 객체적 물감들로 채워진 파래트를 제작한다.



<그림 5> 오븐에 구워진 프린트 된 그래픽 타일들과 퍼즐링 작업

지속적인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 없는 물감은 제거하고, 거울 속에 드러났던 문제점들까지도 파래트에 포함한다. 이러한 제약과 문제점들의 노출을 숨기거나 다른 물감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MIRROR-MAP-PAINTING의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제약과 문제점들을 이용한 표현이야말로 이 작품의 가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3) 3단계-PAINTING(그림 그리기)



<그림 6> 인명부와 그래픽타일과의 검토 작업과 개막식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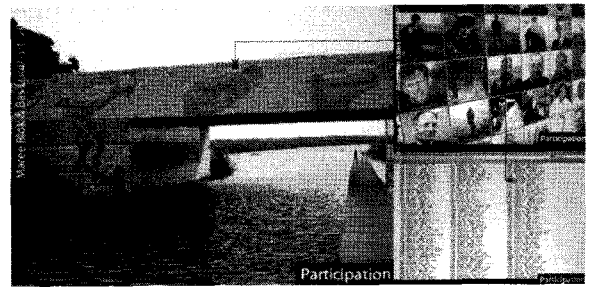
MIRROR단계를 통해 인지된 MAP의 요소들은 조형적, 그리고 과학기술과 다양한 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MIRROR-MAP-PAINTING과 같은 공공디자인 기법은 그 프로세스가 매우 응축적이며, 명료한 특징을 보여준다.

MAP을 통해 준비된 주민들과 선수들의 사진,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의 전체실루엣, 그리고 구체적인 스케일과 색상의 형식적 틀로 채택된 그래픽 타일은 주민들에 의해 제출된 개성 가득한 그들만의 사진들을 컴퓨터 스케닝과 프린트, 그리고 유약이 발라진 타일들을 가마에 굽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타일이라는 소재의 선택은 영구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와 함께 작가가 MIRROR와 MAP의 질료적 특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의 효과적인 매개가 된다.

(4) MIRROR-MAP-PAINTING의 공공성

주민참여를 통한 화합, 지역정체성 확립 등 민주적 절차와 수렴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림 7>과 같이 모든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작품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장 적나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소재로 다리의 표피를 구축했으며, 다리

를 이 지역의 창조적인 자랑거리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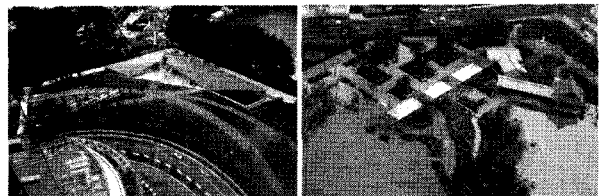


<그림 7> Elfsteden monument, Maree Blok / Bas Lugthart, 2001

3장에서 현대 디자인의 공공성은 과거 공공장소의 의미에서 공공영역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사례는 과거 미술작품 등으로 채워진 공공장소가 의사소통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 스스로의 교화와 주민과 작가의 상호교감의 장소가 되는 기획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공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2. 보이지 않는 배려²⁷⁾ - 디자인에 스며있는 Hospitality(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Collaboraion

도쿄의 미드타운과 요코하마, 룩풍기 힐즈 등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도심재생 프로젝트, 명품신도시 개발 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참고담안이 되고 있다. Artelligent city로서 첫 번째 도심재생 프로젝트인 룩풍기 힐즈는 뉴 어바니즘 개념을 17년이라는 세월의 고통을 땀가로 비교적 세련되게 현실화하였다. 또 도쿄의 미드타운은 이러한 룩풍기 힐즈의 진통을 본보기로 2001년에 시작되어 6년 만에 결실을 본 두 번째 프로젝트이다.



<그림 8> 미드타운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는 자연(좌,우)과 문화(좌), 그리고 전통(우)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룩풍기 힐즈와 같이 다양한 도시기능의 연합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미드타운에서 더 주목할 점은 공간적으로 외부에 계획된 단지의 경계부분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부드럽게 용해하면서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관과 녹지와 갤러리, 그리고 역사적인 공간들이 외부

27) 2장에서 언급한 하이테거의 <존재와 시간> 1부의 "실체"는 자신을 현시하는 과정에서, 생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보살핌이란 현존재가 그러한 생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Ulich Beck, Anthony Giddeons, Scott Lash, 성찰적 근대화, 임현지·정일준 옮김, 초판, 한울, 서울, 1998, p.235

26) 이러한 내용을 네덜란드 건축그룹 MVRDV는 제약시스템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WOZOCO주택작품에서 캔틸레버 구조의 화려한 테라스공간으로 표현하여 이것의 존재를 입증한다.

공간의 보행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관입되어 있으며, 또 단지 내의 첨단안전시설, IT기술, 손님을 위한 4000여명의 서비스 스태프를 골격으로 하는 Hospitality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Hospitality는 환대, 친절히 접대함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일본에서의 “오모테나시”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 사용된다고 한다. “손님에게 차를 따라주는 것으로 대변되는 일본 고유의 손님 접대 문화”인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에 대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의미는 매우 개념적이면서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뮈플래닝(Myu Planning)²⁸⁾의 디자이너들은 Hospitality는 사업기획에서부터 마케팅, 인테리어, 가구, 조명, 간판, 메뉴, 업장 운영 메뉴얼, 주방시스템, 종업원들의 서비스까지 손님을 위한 물리적, 감성적 요소의 총체적인 준비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영역별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책임감, 상호존중에 의한 협업(Collabora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용어에 내재된 의미는 관심, 배려, 포용, 책임, 조화이다. 손님에게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건, 싸구려 포장마차이건 청결과 정돈, 그리고 반기는 얼굴과 상냥한 인사말은 가장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이며, 또 책임이다. 이곳은 위에 언급한 주거, 일, 문화, 여가를 위해 거주자들과 또, 방문한 손님들 모두를 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바닥재에서부터, 시설물, 사인물, 건축물의 공간감까지 섬세하고, 조직적이며, 디테일하다. 지속적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또, 그들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의 개념은 적어도 디자인의 영역에서 그 곳을 방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장소로서의 좋은 본보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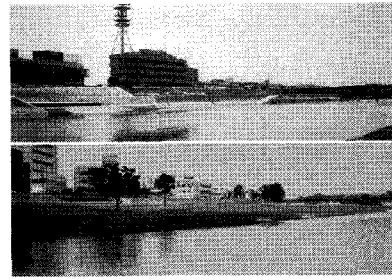
이것은 육안으로 한눈에 읽혀지는 개발과 디자인에 연연하는 포장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생활을 위한 배려와 관심, 책임, 조화가 내재된 공중(公衆)을 위한 진실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4.3. 주체로서의 주민, 지속적 협의,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으로의 회귀 - 도심 수변공간

4대강과 대운하사업이 국내정책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일본의 수변공간 개발사례는 자연과 과학기술 적용에 대해 또 다른 성찰적 자세를 보여준다.

“하천은 원래 홍수시기의 배수로였다.”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일본의 수변공간개발사례는 비록 도심지 내부의 인위적 공간조성일지라도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허용과, 편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연을 염두에 두도록 하여, 하천의 자연적 특징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도시의 하천들

의 자연으로의 회귀를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대적 자세와 기술을 새롭게 견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미묘한 기복으로 테라스 개념을 적용, 자연의 하천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조성된 큐슈의 온가천(川)

큐슈의 온가천(川)은 하천에 테라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미묘한 기복을 주어서 조성한 사례이다. 완만한 경사와 기복은 변화하고자 하는 자연본래의 성질이기 때문에 하

천을 다시 본래의 자연의 성질로 돌려놓은 것이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구상안의 작성과 수차례의 모형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민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 하천은 당시 토목학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 시민단체의 상담의뢰로 시작된 구로메천(川)과 대홍수로 잦은 참사를 겪은 센다이(川)의 경우 시민단체, 자치회, 의원 등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와 워크숍은 물론, 센다이(川) 경우 침수되는 상황을 수차례에 걸쳐 실제모형으로 공개실험을 실시하였다.

구로메천(川)의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치수과와 환경과의 대립이 매우 팽배하였다. 이들의 대립은 결국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진행되었다. 결국 하천을 SLIDE-DOWN(깊은 곳은 깊게, 얕은 곳은 얕게)방식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와 또 그러한 진통과 협의가 섬세하고 정교한 물 계산이 가능한 근대기술의 적용을 찾아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림 10> 센다이천(川)의 침수관련 주민공개실험과 협의장면

큐슈대학의 시마타니 유키히로 교수는 하천경관디자인의 핵심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²⁹⁾

첫째, 하천은 홍수의 배수로였다. 따라서 자연과의 혜택과 위험요소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므로 물 흐름의 조절과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하천은 기본적으로 자연이다. 생태계에 대한 배려와 자연지형의 특성을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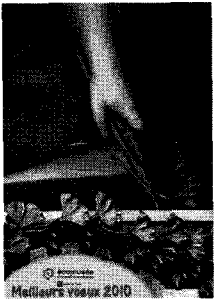
28) 일본 산토리(SUNTORY) 그룹계열의 식음 공간 디자인 전문회사

29) 녹색 국토 조성을 위한 수변공간 디자인 국제 세미나,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10. 29.

셋째, 하천은 사람과의 관계와 역사이다. 역사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도시와 하천과의 관계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 도시화에 의한 하천경관은 도시화에 의한 유출증가, 하천의 수로화, 자연의 상실, 공간구조의 어려움, 커뮤니티의 붕괴 등을 해결과제라고 말한다.

결국 구로메천(川)과 센다이천(川)은 주민들과 함께, 홍수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연경관으로서의 하천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아주 가깝게 제공하였다.

4.4. 모든 도시요소가 콘텐츠가 되는 에코 뮤지엄



<그림 11> 크뢰조 몽소 레민지역 에코뮤제의 홍보이미지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열풍처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 기법들에 기대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재생의 대부분을 관광 등을 통한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두기 위

해 획일화 된 막연한 지표체계들로 구성하고 또 그 기획과 짜임새, 지속성 역시 부족하다. 낙후된 지역의 재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의 제고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러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의 제공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에코뮤지움은 이러한 지역재생의 문제점을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에코뮤지움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1965년부터 1970년에 사이에 생겨났는데, 에콜로지와 뮤지엄의 합성어로서 스웨덴의 스칸센 야외박물관으로 시작한 생활사박물관 운동의 전시기법에서 처음 생겼다. 초기 에코뮤지움은 생태박물관의 모습이었었는데, 점차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언어, 산업, 문화, 가옥 등 지역의 사회유산 콘텐츠 전부를 담게 되었다. 에코뮤지움의 주요 이념은 지역, 주민, 환경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지역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박물관과는 달리 모든 대상을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태대로”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장품”이라는 단어보다는 “대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³⁰⁾ 그리고 주민은 에코뮤지움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이다. 환경은 해당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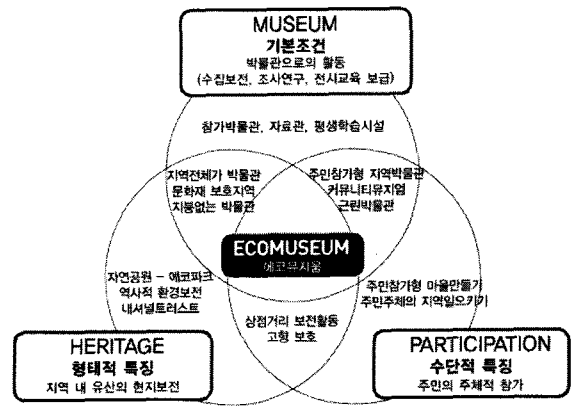
에코뮤지움은 현재 자연환경보다는 사회환경을 보존하

고 연구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과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현 시점의 문화, 예술의 흐름을 반영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에코뮤지움이 그 동안의 박물관이 중시한 형태적 측면보다는 어떻게 활동,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기능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표 2>³¹⁾와 <그림 12>³²⁾는 에코뮤지움의 핵심개념과 기존박물관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에코뮤지움의 창시자인 앙리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움은 “보호되거나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역에 맞는 자유로운 발상 아래에서 실천하는 동안에 형태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표 2> 기존박물관과 에코뮤지움의 차이점

기본 형식	[장소] + [내용 & 대상] + [사람]
기존의 박물관	[건물] + [수집품] + [사람]
에코뮤지움	[영역] + [유산+지역] + [주민]

에코뮤지움은 지역의 모든 공동체의 성찰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또 그러한 참여로 의해 건조된 도시는 하드웨어 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의 소프트웨어 들, 즉 주민들 삶이 곧 뮤지엄으로서의 콘텐츠가 되어 일상을 함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 기능을 전달하여, 진정으로 재생되는 도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컨모더니티 지역재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에코뮤지움 개념

4.5. 예술의 공공성 - 광장의 회복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작품에 대한 현대적 공공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노동당 출신 최초의 민선시장 리빙스턴이 물러나고 2008년 5월보수당의 신세대 정치인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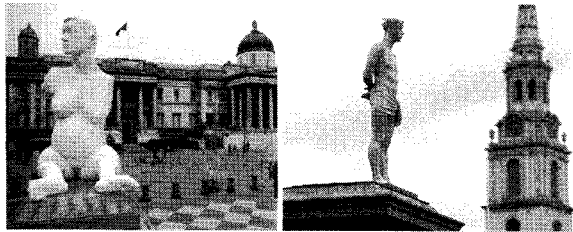
30) 김점석,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박물관 운영모델 개발과 에코뮤제의 발전가능성 -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5.04.01, p.50

31) 오히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김현정, 초판, 아르케, 서울, 2008, p.33

32) 앞의 책, p.32

슨이 런던 시장에 오르면서 영국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트라팔가 광장에 키스 파크라는 전쟁영웅의 기념상이 세워질 것이라는 소문으로 영국 공공미술계는 크게 동요되었다.³³⁾ 이 트라팔가 광장의 다른 좌대에는 넬슨제독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과 전통적인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95년 왕립예술 및 상공업진흥회(RSA)가 웨스트민스터 시의 인가를 받아 비어있는 “네번째 좌대”에 영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올리는 계획에 착수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에 의해서 비틀즈, 아기 곰 푸우, 데이비드 베컴, 복제양 돌리 등이 거론되었지만, 최종결정된 것은 기념비적인 특정인물이나, 사물이 아닌 3년마다 변경되어 올라가게 될 공공미술작품이었다.

이후 이 네 번째 좌대에 1999년 여름 마크 윌린저의 “에케 호모(Ecce Homo)”가 오르게 된다. 마크 윌린저는 마치 바로크 시대의 화가 카라바지오처럼 여호와의 아들로써, 기독교 신의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을 표현한다. 종교와 정치적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출하여 물질만능주의의 쾌락과 욕망 속에서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비판과 참여의 자세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림 13> (좌)마크퀸, 임신중인 엘리스, 2005 - 트라팔가 광장
<그림 14> (우)마크 윌린저, 에케 호모, 1999 - 트라팔가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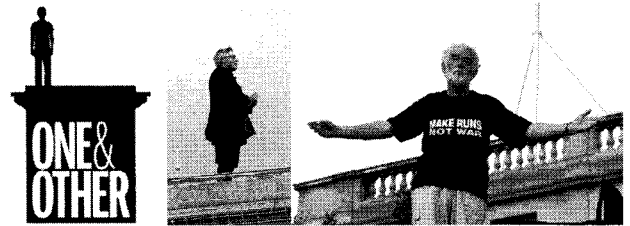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마크 퀸의 임신중인 엘리스 레퍼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마크 퀸은 2000년부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초상 조각시리즈를 제작해왔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자라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그녀가 임신에 성공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한다. 3.5미터의 크기로 제작된 장애여성의 조각은 충격과 감동으로 트라팔가 광장의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를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한다.

2009년에는 작가 안소니 고펠리³⁴⁾가 살아있는 조각(Living Sculpture)이라는 주제로 원앤드아더(one& other)라는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 아닌 일반인들(100일동안 1시간씩 2400명)을 이 좌대에 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이 좌대는 지나간 전쟁영웅들의 기념비성이 아닌, 현대미술로서 각양각색의 일반인들이 보여주는 일상적 모습들이

33) 임근해, 창조외의 계국 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초판, 지안출판사, 서울, 2009, p.409

34) 영국 게이즈헤드 지역재생의 상징인 북방의 천사로 유명한 작가이다.

보여주는 역사의 아이러니로 채워지게 된다.³⁵⁾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적어도 트라팔가 광장의 공공성은 공격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참여와 비판 그리고 그로인한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광장, 다시 말해 진정한 “공중의, 공중에 의한, 공중을 위한” 공공의 광장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15> 안소니 고펠리의 ONE&OTHER - 일반인들이 좌대에 오른 모습

5. 세컨 모더니티 공간환경디자인의 특성

위의 5가지 사례들은 현대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을 성장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입장에서 살펴 본 것이다. 사례를 통해 2장에서 래쉬가 말한 대로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미학적이기보다는 인지적 경향이 강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적, 조형적 특성보다는 태도와 자세와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공공장소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내용들로서 물리적인 하드웨어일수도 있으며, 일본의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와도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

4장의 모든 사례들은 2장에서의 짐멜과 사실주의의 신즉물주의 예술에서 언급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참여와 비판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개념과 공동체 스스로의 자기관리와 교육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공생과 공존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그 미학적 측면에서는 원칙과 형식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몰형식(沒形式)적이며 기존의 상징과 의미, 맥락에 유연하고 비표상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명료함과 낮은 소격효과(疏隔效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큰 이유는 3장에서 다루었던 공간환경의 본질적 목적으로서의 기능, 즉 공중들의 의사소통과 자기교육의 실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컨 모더니티 공간환경디자인의 공공성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에 대한 참여와 비판의 기능과 푸코의 자기관리합리성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공동체적 주체로의 회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롭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정리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35) 앞의 책, p.425

<표 3> 세컨 모더니티 공간환경디자인의 특성

특성	내용
보편성과 일상성	보편성(접근성, 기능성)과 일상성에 집중한다. 매우 일상화된 당연한 현상에 주목한다. 디자인의 공공성에 있어서 성찰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다양성과 혼돈에 의한 접속들의 관성에 의해 놓쳐버린 수많은 일상적 모습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 사물에 있어서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보편적 기표체계의 추구를 통한 사용자들의 접근은 합목적성을 최적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과학적 합리성	객관적 사실들을 디자인 근거로 합리적(과학적, 사회적 입장에서)으로 진행한다. 정성적, 정량적 변수들의 객관적 입력과 조작(연산)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작업과정은 과거에 묻힌 진실을 파헤쳐 정리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객관적 시각과 행동 데이터들은 매순간 주관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환경디자인의 현대적 방법론(외삽)에 의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진행과정 속에 전문가, 행정가, 시민 모두가 참여, 협의와 협업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다.
물형식성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물형식적이다. 공간의 공공성들이 그동안 누렸던 목계들, 용도들이 유지, 제거되고, 또 새롭게 혼합된다. 형(形)-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있으나 식(式)-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비형식과는 다르다. 결과와 과정 모두를 의미하며, 내용을 즉, 질료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맥락에 대한 유연성	맥락(Context)에 대한 유연성을 가진다. 과거 지역, 장소, 시간적 맥락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가치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맥락은 유지되고 지켜지기도 하지만, 조작되고, 조절되고, 또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다.
유효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과학적 수단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풍부한 상상력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기획은 최대한 자유로우며 기법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용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강한 소격효과	그 표현의 즉물성으로 생경하고 낯선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아상블라주, 새로움, 충격, 유머 등(공공미술에서 두드러진다.)으로 고착된 인식들을 환기시킨다.
명료한 파사드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된 결과물로서 그 기능(합목적성)이 곧 기표와 기의로 동일시되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외부와 내부 모두 계획의 의도가 적시된다.
비표상적, 탈기표적 주제화	무엇인가를 재현하려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재현하기 위해 동일한, 유형화된 기표들을 차용하지 않는다.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표상개념보다는 계속된 생성으로 차이를 표현하는 비표상성을 띤다.
자기관리와 현실참여와 비판적 양상	디자이너, 작가 개인의 주관성, 예술적 목적인 자기관리의 합리성과 함께 환경과 공역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 한다.
역사성 내재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내재된 시대성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므로 시대성이 응축된 역사성을 가지게 된다.

6. 결론

성찰적 근대화라는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한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의미는 다양성과 차이, 혼돈으로 부터 잃어버렸던, 그리고 디자인에 내재되었던 고착된 보편성과 일상성의 당연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마치 램 콜하스(OMA)가 엘리베이터의 고정관념³⁶⁾(사무실이나 고층빌딩에나 있어야 된다는)에 사로잡힌 기능적 보편성을 장애인이나 원하는 주택의 방이라는 콘텐츠로서 엘리베이터의 기능적 가치를 명민하게 승화시킨 것에도 같다. 따라서 성찰의 입장에서 세컨 모더니티 디자인의 공공성 역시 보편타당하면서도 절대적 목적인 기능의 성찰이 내재된 콘텐츠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36) 램 콜하스(OMA)는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프로젝트에 내재된 명성함과 어리석음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항상 집중한다고 한다.

이 연구는 성찰적 근대화라는 시대 진단적 사회학의 거대담론을 디자인과 사회학적 공공성이라는 영역을 표층적으로 연결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모더니티를 공중(公衆)이라는 주체의 거시적 시각에서 모더니티의 심화, 유실된 모더니티의 복원, 모더니티의 확대³⁷⁾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진행형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폭포와도 같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디자인의 공공성을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권력, 공간, 문화, 주체, 객체를 중심으로 성찰의 포커스를 쟁점화 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1. 스콧 래쉬·조나단 프리드먼, 현대성과 정체성, 윤호병·안정석·차원현·임옥희, 초판, 현대미학사, 서울, 1997
2. 박길룡 외 12인(최왕돈, 이공희, 이경훈, 장윤규, 오기수, 정현화, 오성훈, 김종성, 김문환, 이진경, 이정우, 김우일), 세컨드 모더니티의 건축(Architecture of second modernity), 초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5
3. 김세훈·현진권·이준형·김정수·이기호·양현미, 공공성, 초판, 미메시스,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2008
4.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Culture politics of space, 초판, 논형, 서울, 2005
5.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정일준, 초판, 도서출판 한울, 서울, 1998
6. 김덕영, 인문정신의 탐구 5.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초판, 도서출판 길, 서울, 2008
7. 임근해, 창조의 제국, 초판, 지안출판사, 서울, 2009
8. 오하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에코뮤지엄 기행, 김현정, 초판, 도서출판 아르케, 서울, 2008
9. 올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초판, 새물결 출판사, 서울, 2006
10. 스코트 래쉬·존 어리, 기호와 공간의 경제, 박형준·권기돈, 초판, 현대미학사, 서울, 1998
11.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초판,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서울, 1997
12. 피터, L, 버거, 사회학에의 초대, 이상률,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6
13. 김점석,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문학관 운영모델 개발과 에코뮤지엄의 발전가능성 -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5.04.01
14. 이상민·고은정·임유경,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도 안양, 2008.11.30
15. 염철호·조준배·심경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경기도 안양, 2008.12.31
16. 박영태, 콘텐츠중심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통권 제73호, 2009.4
17. 박영태, 건축디자인의 신즉물주의적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50호, 2005.6

[논문접수 : 2009. 12. 31]

[1차 심사 : 2010. 01. 18]

[게재확정 : 2010. 02. 05]

37) 박길룡 외, 세컨 모더니티의 건축, 초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rologue